

2분기 기업 호실적 전망에 美 지수추종형 ETF ‘뭉치돈’

S&P500 기업EPS 63% 증가 예상
SPDR ETF 등 S&P500 상품 주목
매수 상위 10개 종목 중 5개 달해
금융·에너지 등 경기민감주 약세

2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어닝 시즌을 앞두고 지수추종형 미국 상장지수펀드(ETF)에 대규모 투자금이 몰리고 있다. 미국 증시의 강세가 투자심리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는 평가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주요 경제지표가 흔들리기 시작하며 주식과 채권의 변동성이 우려되자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지 않은 선택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S&P500 기업 호실적 전망에 자금 유입

15일 ETF닷컴에 따르면 지난 9일(현지시간) 기준 최근 한 달 동안 가장 많은 자금이 쏠린 ETF 상품은 96억7080만달러를 기록한 ‘SPDR S&P500 ETF 트러스트(Trust)’(SPY)로 조사됐다. 미국 대형주 위주의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를 추종하는 대표적인 상품이다.

뒤를 이은 것은 ‘인베스코(Invesco)

〈최근 미국 ETF 자금 유입 상위 10종 미국 ETF 개요〉 (현지시간 9일 기준, 단위: 달러, %)

티커	상품명	유입자금	수익률
SPY	SPDR S&P 500 ETF Trust	96억7080만	2.38
QQQ	Invesco QQQ Trust	92억6933만	6.66
VTI	Vanguard Total Stock Market ETF	38억6411만	1.75
VOO	Vanguard S&P 500 ETF	34억9650만	2.40
IVV	iShares Core S&P 500 ETF	27억5164만	2.40
BND	Vanguard Total Bond Market ETF	22억4286만	1.30
TLT	iShares 20+ Year Treasury Bond ETF	22억1941만	5.95
IEFA	iShares Core MSCI EAFE ETF	20억2360만	-3.22
XLV	Health Care Select Sector SPDR Fund	18억4023만	5.42
SPYG	SPDR Portfolio S&P 500 Growth ETF	17억0329만	7.11

/ETF닷컴

QQQ trust’(QQQ)다. 나스닥에 상장된 주식 중 금융주를 제외한 100여개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삼는 상품으로 92억6933만달러가 유입됐다.

두 상품 모두 투자자들 사이에서 압도적인 인기를 과시 중이다. 3위를 차지한 ‘뱅크드 토탈 스톡 마켓(Vanguard Total Stock Market) ETF’(VTI·38억6411만달러)하고는 2배 이상 격차다. QQQ의 경우 한 달간 국내 투자자도 6665만달러를 사들여 이 기간 해외주식 순매수액 5위에 오르기도 했다.

S&P500 지수를 추종한다고 볼 수 있는 상품만 상위 10개 중 절반인 5개에 달했다. VTI도 S&P500, 나스닥, 다우지수 등 미국에 상장된 3000여개 모든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이는 S&P500 기업들의 호실적 전망에 기인한다. 시장조사업체인 팩트셋 자료를 살펴보면 S&P500 기업들의 올해 2분기 주당순이익(EPS)은 전년 동기 대비 63%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52.5%가 증가했던 지난 1분기를 10%p(포인트) 이상 웃도는 수치로 2008~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이 외에 뱅가드 미국투자등급채권ETF(BND), 장기국채 ETF(TLT) 등에도 관심이 쏠렸다. 미국 이외 국가의 금리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미국 국채가 글로벌 채권 투자자들로부터 대안으로 주목됐다는 분석이다.

서세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3대 지수가 나란히 최고치를 경신함에 따라 S&P500을 추종하는 ETF와 미국 시장 전반에 투자하는 ETF가 주목 받고 있다”며 “성장주의 강세는 QQQ의 자금유입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용지표 호조 등에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며 물가연동채, 지방채에 투자하는 ETF로도 자금 유입이 관찰된다”고 덧붙였다.

◆ETF도 경기민감주 이탈…위험자산 선호도 ↑

금융·에너지 ETF 등 경기민감주 상품들이 순위표에서 이탈한 것도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 경기반등 모멘텀 약화로 금리가 안정되며 경기민감주가 내리고 성장주가 강세를 보이는 스타일의 변화 때문으로 해석된다. 델타 변이바

이러스 등장으로 코로나19 감염자 수 증가도 한몫했다.

조익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한 동안 경기민감 섹터에 집중됐던 ETF 자금 흐름이 거의 1년 만에 경기방어 섹터로 전환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또다시 코로나19 대유행 현상이 나타나며 최근 선진국 주요 경기지표에서 일부 꺾이는 모습이 발생했다”며 “향후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국채에 대한 선호심리와 함께 위험자산의 강세 현상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성장주에 투자하는 ETF나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을 담는 ETF의 반등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문남중 대신증권 연구원은 “우려보다는 희망에 무게가 실리며 위험자산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금융시장의 변동성 완화에 ‘리스크 테이킹(위험 감수)’ 수단으로 ETF가 각광을 받는 시기가 도래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경기 회복, 금리 상승에 대응할 수 있는 회사채와 실물 자산 선호도가 ETF에도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 위해 제도개선 시급”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필요성 강조

“올 초부터 국회에서는 퇴직연금의 수익률 개선을 위해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수익률 제고라는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리금보장상품도 사전지정운용 상품 유형에 포함한 법안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통과 되기를 기대한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금융투자협회는 15일 온라인 하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 상반기 금융투자협회 성과와 하반기 추진 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금투협은 하반기 추진 사업으로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 ▲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공모펀드 활성화 ▲리츠(REITs) 시장 활성화 ▲장의주식 시장인 K-OTC 활성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 지원 등을 꼽았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 /금융투자협회

나 회장은 저조한 퇴직연금의 수익률 개선이 필요하며 “사전지정운용 상품 유형에 원리금보장상품 포함 여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라며 “협회는 노후 소득보장기능이 거의 상실된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 제도가 도입되면 가입자 유치 후 사후 서비스가 소홀한 지금의 시장 구조를 개선할 것이라는 게 금투협의 설명이다. 수익률 경쟁에서 뒤처진 사업자는 가입자 외면을

받고, 맞춤형 서비스와 상품으로 경쟁하는 구조로 바뀔 수 있다는 것.

투자형 ISA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투자형 ISA는 금융투자상품 전용 비과세 상품으로 올해 초 주식 투자가 허용된 투자중개형 ISA보다 세제 혜택이 풍부하다. 투자중개형 ISA는 출시 4개월여 만에 80만 계좌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그는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자산 증식을 위해 ISA 제도 개선에도 계속 힘을 기울이겠다”며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우리 경제를 선도할 혁신기업의 성장 지원에 활용하려면 자본시장에 장기 투자하는 국민에게 획기적인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모펀드와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인 리츠 활성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금투협은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탄력적인 펀드 운용이 가능한 규제 개선, 외화표시MMF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지난 2월 발표한 상태다. 리츠에 대한 투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리츠지원 전담조직을 신설하기도 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대우건설, ‘디지털 원패스 시스템’ 도입

카톡 푸르시오 채널 QR코드 통해 신분증 확인 등 대면 접촉 최소화

대우건설이 견본주택을 방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디지털 원패스 시스템’을 도입한다. 앞으로 대우건설의 견본주택을 찾는 고객들은 수기로 문서를 작성하는 대신 스마트폰 카카오톡 푸

르시오 채널에서 발급받은 개인 QR코드를 통해 견본주택 방문에 필요한 각종 업무를 휴대폰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 원패스 시스템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할 수 있고 직원들이 일일이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대면 접촉을 최

소화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대구 교대역 푸르시오 트레 힐즈에만 현재 적용되며 향후 분양 단계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15일 “코로나19로 더욱 가속화된 언택트 시대에 고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온라인 서비스 확충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수습기자 wonster@

미래에셋, 블록체인 등 혁신ETF 美 상장

자회사 글로벌X 통해 나스닥 상장
글로벌 엑스 블록체인 ETF 등 3종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나스닥에 미국 상장지수펀드(ETF) 자회사 글로벌X가 신규 ETF 3종목을 상장했다고 15일 밝혔다. 신규 상장 ETF는 블록체인 기업에 투자하는 ‘글로벌 엑스 블록체인(Global X Blockchain) ETF’를 비롯해 ‘글로벌 엑스 애그테크(농업정보기술) 앤 푸드 이노베이션(Global X AgTech & Food Innovation) ETF’, ‘글로벌 엑스 수소에너지(Global X Hydrogen) ETF’ 3종목이다.

Global X Blockchain ETF(티커 BKCH)는 투자테마가 블록체인과의 연관성이 높다는 점이 인정돼 미국 최초로 상품명에 ‘블록체인’이 포함돼 상장됐다.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관련 기업에 투자한다. 디지털 자산 채굴,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 같은 테마뿐만 아니

라 블록체인·디지털자산의 하드웨어, 거래, 컨설팅 테마에도 투자하며, ‘SO LACTIVE(솔랙티브) Blockchain Index’를 추종한다.

Global X AgTech & Food Innovation ETF(티커 KROP)는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기술 애그테크(Ag Tech) 및 식품공학 관련 기업에 투자한다. 애그테크는 농업(Agriculture)과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융합성으로 농업생명공학기술, 정밀농업, 대체식품 등을 아우른다.

Global X Hydrogen ETF(티커 HYDR)는 수소 생산 또는 수소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에 투자한다.

제이 제이롭스 글로벌X 리서치·전략본부장은 “기술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고, 소비자 및 인구 동향은 전염병 여파로 계속 변화하고 있다”며 “트렌드 변화에 발 맞춰 테마형 ETF를 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대신증권 8리츠 하반기 전망 보고서 발간

대신증권은 코로나19가 일본리츠 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성장기 대되는 섹터를 제시하는 ‘J-REITs 2021년 하반기 전망 : 프리미엄 자산에 주목’을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보고서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세 가지 변화로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 일본 오피스 시장의 선별적 회복, 보복 여행 증가를 꼽고 있다. 이커머스를 활용한 소비 변화로 물류산업의 구조적 성장과 여행 증가로 인한 호텔 실적 개선 등을 전망한다.

목차는 ▲J-REITs 밸류에이션 및



을 수 있다.

상반기 리뷰 ▲코로나19 이후 J-REITs 시장의 3가지 변화 ▲대표 종목으로 구성되었다. 보고서는 대신증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양유경 수습기자 noon@